

[넘버즈 136호] 로데이터 목 차

1. '출산에 관한 종교인별 인식조사' 보도자료 ----- p. 02-09
- CTS기독교TV
2. 2021 한국선교현황 조사 보고서 ----- p. 10-21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3. '한국 흡연으로 연간 사망자 수 5.8만 명' 보도자료 ----- p. 22-30
- 질병관리청

담당 서지은 팀장 (010-2417-6330), 본부장 변창배 목사 (010-6223-8877)

시행 : 2022년 3월 15일

발송 2022년 3월 일

우편번호 : 06928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기독교TV

전화 : 02-6333-2502 / 전송(FAX :02-6333-1176) / E-MAIL : lovej@cts.tv

/ 공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1.98명

- 2021년 출산율은 0.81명으로 추정, 4년째 1자리수 이하, 자녀 필요에 대한 공감은 높으나 현실적 여건으로 실제 출산율은 반영되지 못함
- 과도한 육아 및 교육 비용이 가장 큰 출산의 저해 원인으로 분석
- 다음세대 돌봄운동,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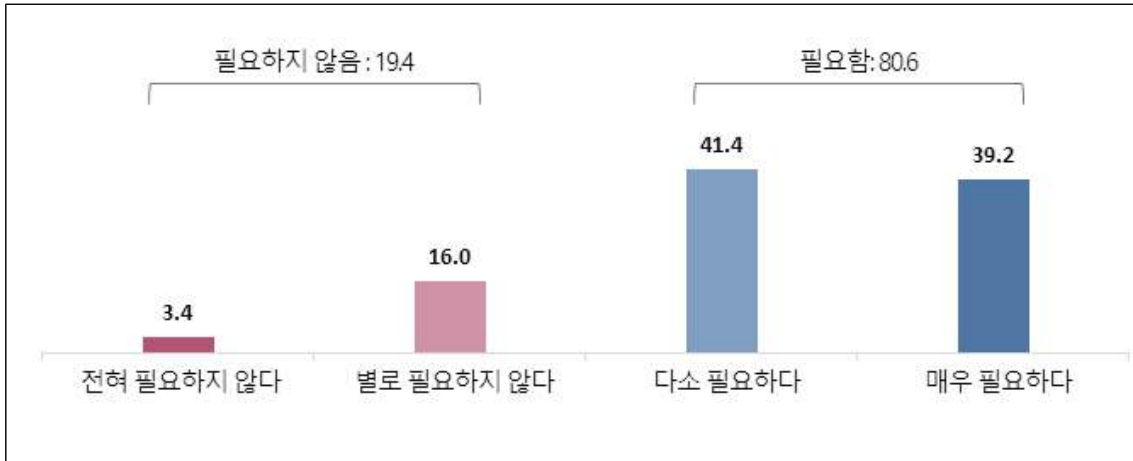
-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이철, 류영모, 배광식, 감경철 공동총재)는 3월 15일(화) CTS컨벤션 홀에서 ‘출산에 관한 종교인별 인식조사결과’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달 했다. 발표자로는 변창배 본부장(CTS다음세대운동본부), 지용근 대표, 김진양 부사장(지앤컴리서치)가 참여하였다.
- CTS다음세대운동본부는 지난 7월 14일 CTS기독교TV가 중심이 되고 한국교계가 연합하여 출범한 단체로서 ‘한국교회 부모 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란 슬로건과 함께 다음세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다음세대 운동의 핵심 안건(아젠다) 중 하나인 ‘저출생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운동본부 측은 지난 2021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돌봄의 해결이 저출산 답이 있다’는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부모들의 자녀 보육/돌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 돌봄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 그리고 이어서 조사한 ‘출산에 관한 종교인별 인식조사’ 또한 이상적인 자녀 수 보다 실제 자녀수나 계획 자녀수가 적다는 결론을 보며 그동안 운동본부에서 제시한 돌봄 운동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 운동본부에서 진행한 현장과 학계의 연구와 토의가 담긴 2번의 심포지엄(2021.7.14. / 2022.1.20.)의 결과와 2번의 리서치 조사 결과를 통해 준비한 아동이 행복한 다음세대 정책제안서를 이번 대통령후보 선거 캠프에게 전달하였다.

I. ‘출산에 관한 종교인별 인식조사’ 요약

1. 이상적 자녀 수 보다 실제 자녀 수 및 계획 자녀 수가 더 적음

[그림] 자녀의 필요성(‘다소 필요 + 매우 필요’)

(Base=전체, n=3000, %)



[그림] 자녀 수의 이상과 현실

(명)



응답자 5명 중 4명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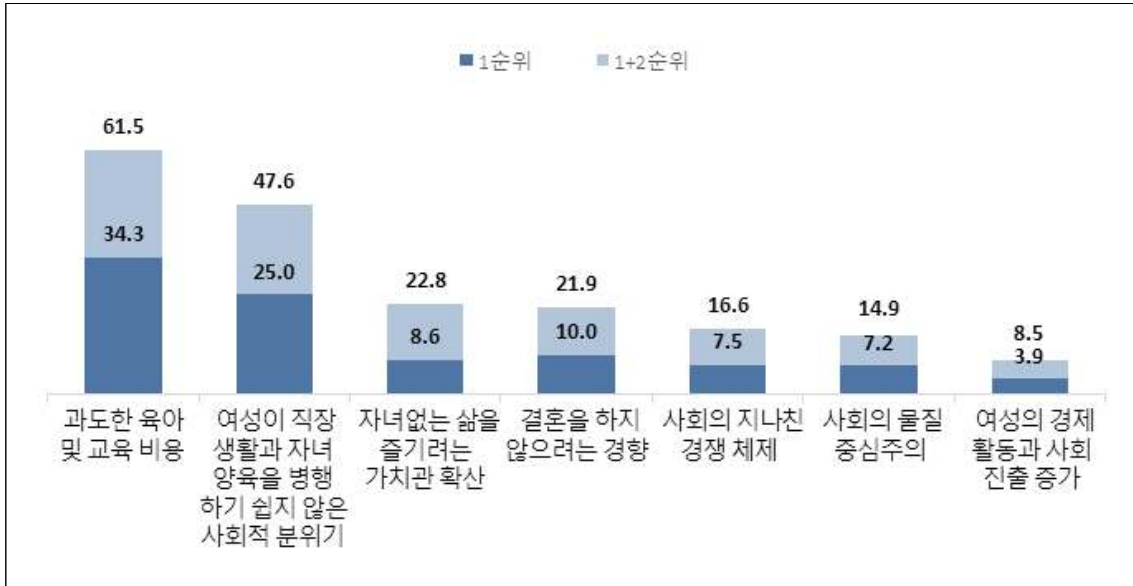
한편, 이상적 자녀 수 평균 1.98명 > 총 자녀수(기혼자) 평균 1.71명 = 향후 계획 자녀 수(미혼 중 결혼 의향자) 평균 1.71명 ≒ 자녀의 희망 자녀 수(기혼자) 평균 1.73명으로, 평균 두 명을 이상적 자녀 수로 꼽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수를 낳고 있음. 결혼 의향자가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도 이상적 자녀 수보다 적음. 또한, 자신의 자녀가 낳았으면 하는 자녀 수도 이상적 자녀 수보다 적음.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인식 높으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출산을 덜 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줌.

2. 출산 의향을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점 파악 및 개선 필요

[그림] 저출산의 원인

(Base=전체, n=3000, %)



출산 의향이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파악 필요.

응답자 5명 중 3명은 '과도한 육아 및 교육 비용'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았고, '여성의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두 번째로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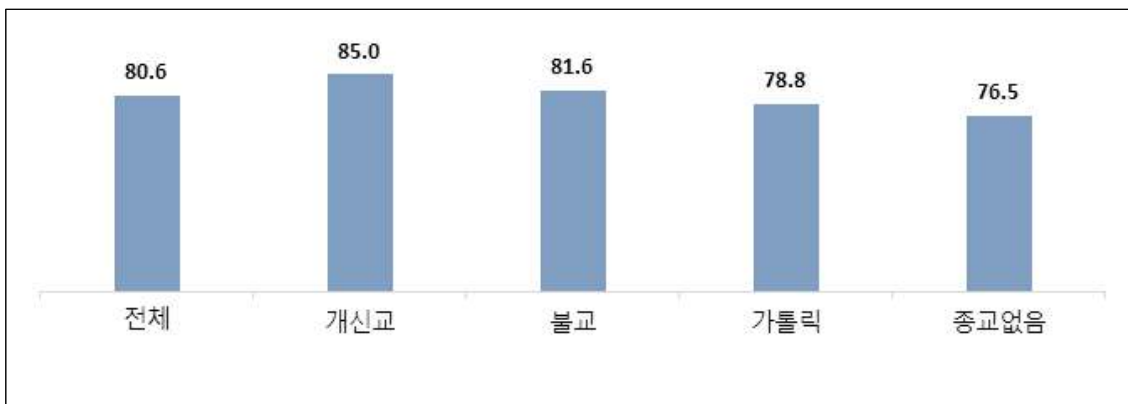
응답 결과는 경제적 문제, 사회적 인식,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출산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주고 있음. 즉, 저출산은 어느 한 분야의 문제만이 아닌 여러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현상임.

▶ 사회 각 분야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 특히,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조건 개선과 과도한 육아 및 교육비를 개선해야 함.

3. 개신교인, 기혼자의 총 자녀수 가장 많고, 미혼자의 결혼 의향을 높여

[그림] 자녀의 필요성('다소 필요' + '매우 필요')

(Base=전체, n=3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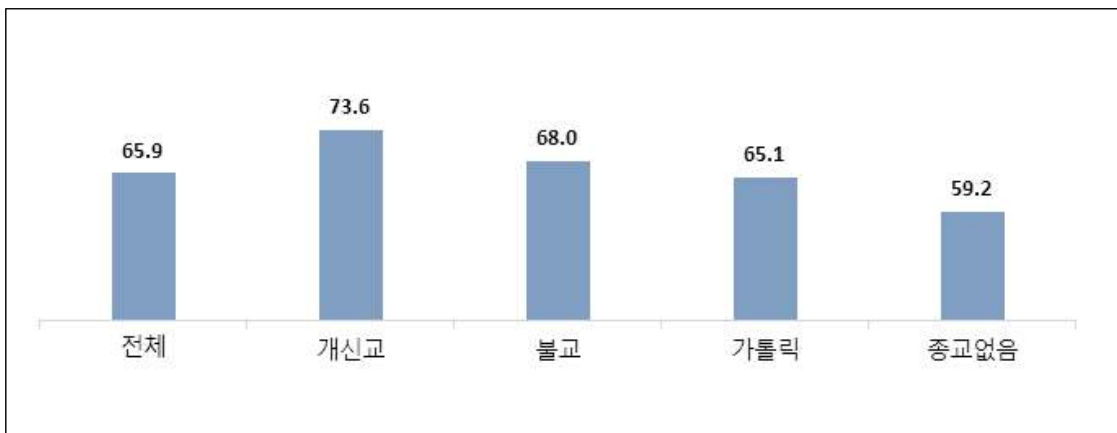
[그림] 총 자녀 수('현 자녀 수 + 향후 계획 자녀 수', 기혼자 대상)

(Base=기혼자, n=1785, %)



[그림] 결혼 의향률('약간 있다 + 매우 있다', 미혼자 대상)

(Base=미혼자, n=1215, %)



자녀가 '필요하다(다소+매우)'는 인식은 개신교인에서 85.0%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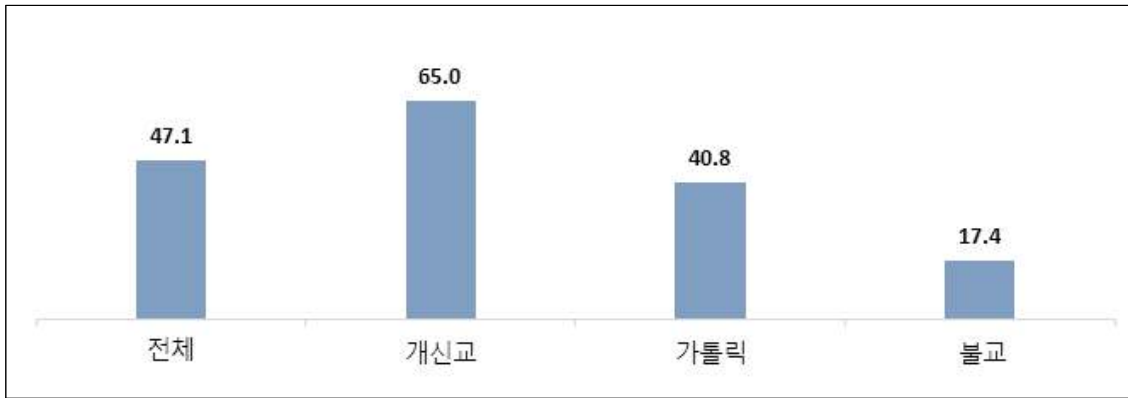
기혼 개신교인의 '현 자녀 수'는 불교인에 이어 2위(불교 평균 1.49명 > 개신교 평균 1.43명), '향후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는 가톨릭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위에 나타남(가톨릭 평균 0.38명 ≍ 개신교 평균 0.37명). '현 자녀 수'와 '향후 계획 자녀 수'를 합한 '총 자녀 수'는 개신교인이 가장 많음. 미혼 개신교인의 향후 결혼 의향률은 개신교인에서 가장 높음.

▶ 개신교인이 결혼과 출산에 있어 타 종교인보다 긍정 인식이 높음.

4. 개신교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은 교회의 가르침에서 비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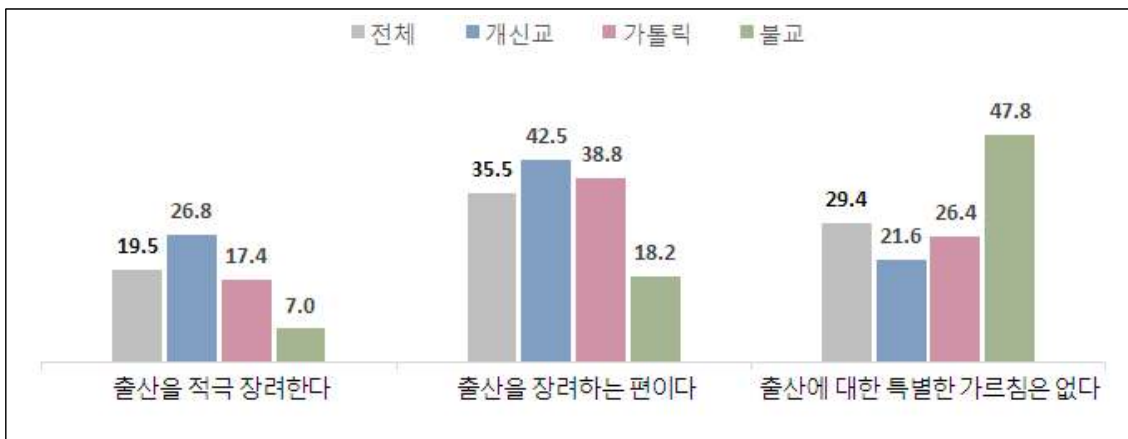
[그림] 종교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강조 정도('어느정도 강조 + 매우 강조', 종교인 대상)

(Base=종교인, n=2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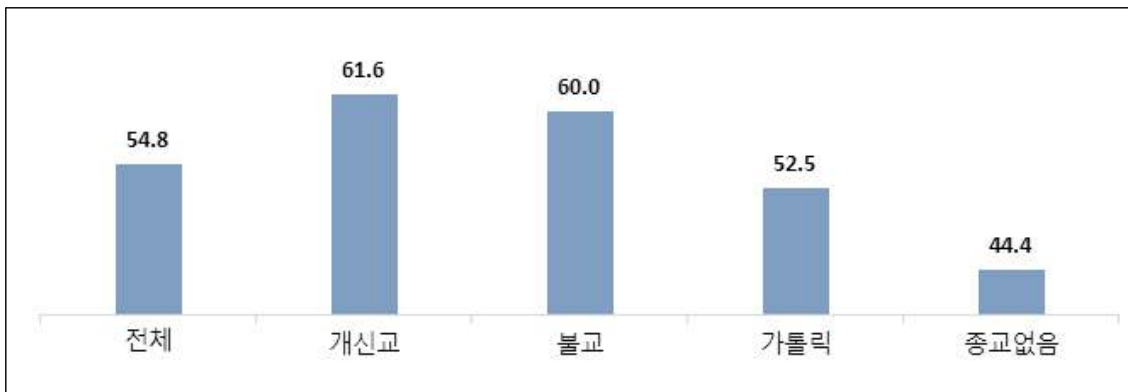
[그림] 종교의 출산에 대한 가르침(종교인 대상)

(Base=종교인, n=2000, %)



[그림] 자녀에게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 정도('가끔+자주', '자녀 있음' 대상)

(Base='자녀 있음', n=1449, %)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종교별 강조 정도 : 개신교 가장 높음.

출산에 대한 가르침 : 개신교 가장 높음.

평소 자녀들에게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는 정도 : 개신교인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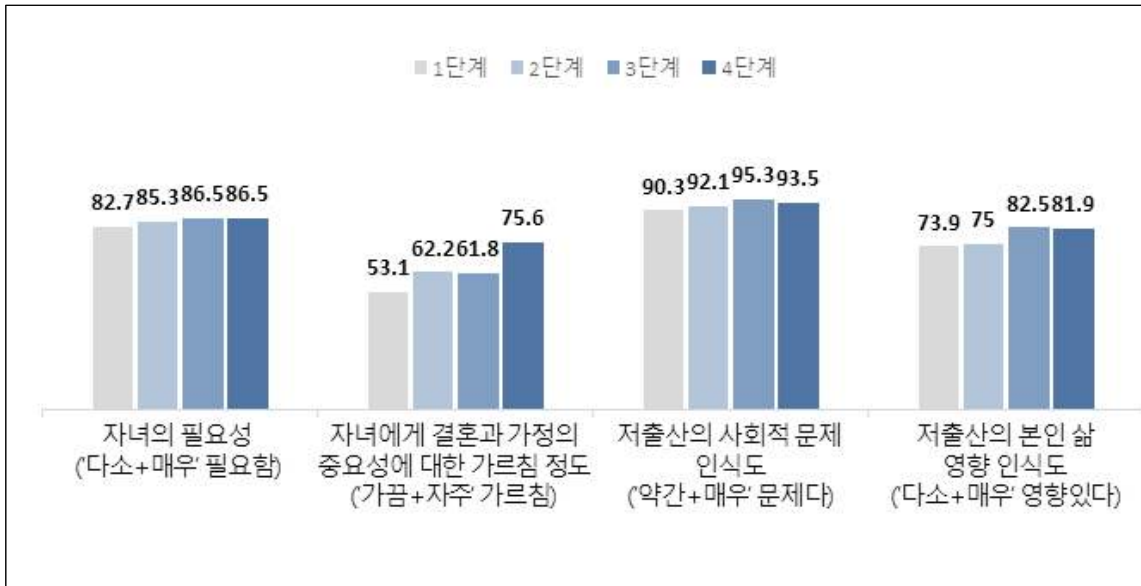
▶ 평상시 교회로부터 받은 가르침으로 인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자녀에게 결혼/가정에 대해 교육하는 비율도 높음.

5. 개신교인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면..

1) 신앙교육을 통한 출산 장려 교육 필요

[그림] 개신교인의 신앙단계별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Base=개신교인, n=1000, %)



개신교인 중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이고 문제인식이 높음. 즉,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결혼과 출산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없고 적극적일 것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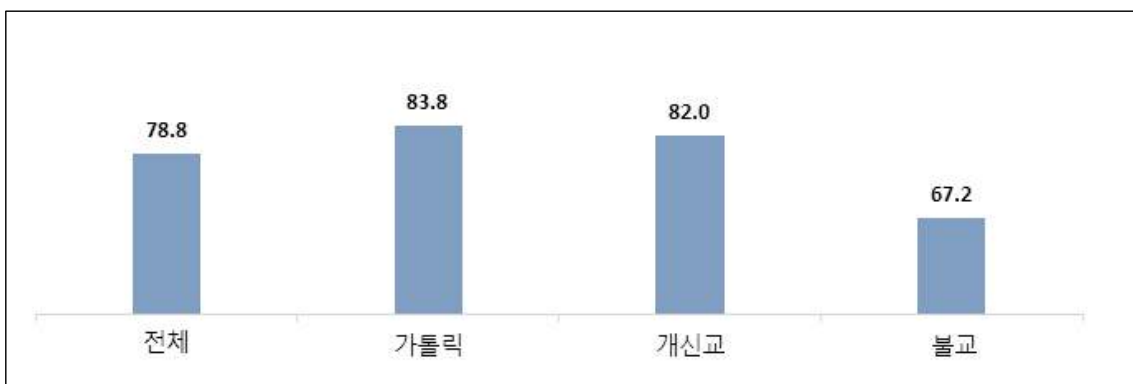
이는 앞서 언급한 교회로부터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키우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신앙교육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실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도록 함.

2) 교회의 돌봄기관 운영을 통한 출산/양육 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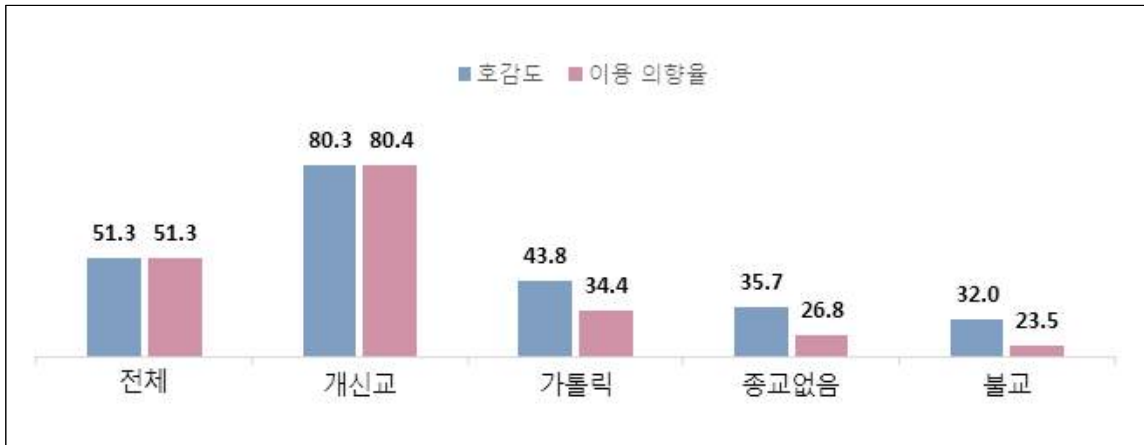
[그림] 종교시설 운영 돌봄기관에 대한 인식(종교인 대상)

(Base=종교인, n=2000, %)



[그림] 교회 운영 돌봄기관 호감도('약간+매우' 호감) 및 이용 의향률('약간+매우' 의향 있음)

(Base=전체, n=3000, %)



[그림] 교회의 출산 중요성 강조/돌봄기관 운영이 출산을 증가에 도움 정도

(Base=전체, n=3000,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돌봄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78.8%로 높은 편.

비록, 교회 운영 돌봄기관에 대한 호감도는 종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나, 타 종교에서도 30% 이상의 호감도를 보이며, 이용의향률은 23~34%로 나타남.

교회가 돌봄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호감도나 이용 의향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교회 운영 돌봄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사람 중에도 1/4은 교회의 돌봄시설 운영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23.2%). 즉, 호감도나 이용의향률을 차치하고, 돌봄 사역은 그 자체로 출산율 제고에 일정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돌봄기관 운영 통해 앞서 문제점으로 꼽혔던 출산과 육아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CTS 다음세대운동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독교가 출산과 결혼에 대해 가장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나서 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뒷받침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 이전 조사 결과인 교회가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보육/돌봄의 대안이 됨과 함께 교회 에서 적극적으로 신앙교육을 한다면 환경적으로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도 기대한다. 교회

가 보유한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며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앞으로도 주장할 핵심 방향성이 될 것이다.

- 그리고 다시한번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돌봄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교회가 돌봄 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종교인 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이 해소가 된다면 출산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답변하였다.
- 다만 다음세대 돌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교회에서 지속적인 캠페인과 함께 교회시설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과 인력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여전히 교회 돌봄기관에 대한 개신교인/비개신교인 간의 인식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 CTS 다음세대운동본부는 이번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세대 돌봄 운동의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로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 한국선교현황 보고

2022. 2. 23.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조사 및 발표를 맡은 2021 한국 선교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¹

1. 머리말

KRIM과 KWMA가 이전부터 각각 조사 발표하던 한국선교현황을 한국선교 발전을 위해 2020 선교현황조사부터는 단일화하여 발표하기로 협약하였고, 2020년에 이어 이번 2021년 조사에서도 한국 선교사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먼저 명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된 선교사를 조사하였다.

2. 선교현황 개요

2021년 한국 선교사 현황은 167개국²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 22,210명³의 장기 선교사와 402명의 단기 선교사(선교단체 소속) 및 한국 선교단체가 파송한 국제 선교사(외국 국적) 929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선교 현황을 위해 조사된 단체는 227개⁴ 단체(선교단체와 교단)이며, 통계조사는 온라인 또는 문서파일 형태를 사용하여 2021년 11월 9일부터 12월 말까지 회신을 받았으며, 미회신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보완하였다.

3. 한국선교현황 주요 통계

한국선교현황의 주요 통계는 선교단체와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 자녀에 대한 내용이다.

3.1 한국선교단체 현황

단체에 관해서는 초교파 선교단체와 교단, 국내(국내 자생)단체와 국제 단체로 구분하였고, 한국 선교단체의 주요 기능 분포와 규모에 대해 다루었다.

3.1.1 초교파 선교 단체(비교단)와 교단

전체 선교단체를 초교파 단체와 교단으로 나누어 보면, 42개 교단과 185개 비교단(초교파 선교단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사의 비율은 교단 소속 47.9%과 초교파 파송 단체

¹ KRIM 책임연구원: 홍현철, 연구원: 김성태, 김범영, 윤희정, 황실리. 발표된 통계자료와 도표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출처표기를 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한국선교연구원(KRIM).

² 사역 대상국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 파송국은 166개국이다.

³ 부부는 2명으로 계산되었으며, 교단 선교부와 전문 선교단체의 이종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22,210명은 이중소속 중복이 포함된 전체 선교사 23,329명에서 1,119명(4.8%)을 제외한 수이다. 조사대상은 한국 개신교 선교단체로 제한하였다.

⁴ 이번 조사대상은 이전의 10개 단체를 삭제하고, 신규로 4개 단체를 추가하였다.

소속 52.1%⁵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도표는 2020년과 2021년 교단과 초교파 단체의 선교사 수를 기준으로 한 규모이다.⁶

교단	단체수		선교사수		초교파(비교단)	단체수		선교사수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50 명 미만	17	17	374	421	50 명 미만	145	140	1,946	1,926
50-99 명	8	7	583	500	50-99 명	19	19	1,381	1,345
100-199 명	6	7	748	836	100-199 명	13	12	1,750	1,576
200-499 명	6	6	2,479	2,498	200-499 명	10	10	3,721	3,596
500-999 명	2	2	1,324	1,367	500-999 명	2	2	1,222	1,196
1,000 명 이상	3	3	5,694	5,546	1,000 명 이상	2	2	2,474	2,522

3.1.2 국내 단체와 국제 단체⁷

국내 단체와 국제 단체로 나누어보면, 단체 수의 비율은 국내 단체는 89.9%(204개), 국제 단체는 10.1%(23개)이며, 선교사의 비율은 국내 단체 소속이 88.6%, 국제 단체 소속이 11.4%이다.

3.1.3 단체 유형

선교단체의 주요한 역할을 4가지로 분류하면, 파송단체(sending agency), 봉사단체(service agency), 지원단체(support agency), 전문단체(specialized agency)로 분류해 볼 수 있다.⁸

한국 선교단체의 주요 역할에 의한 4가지 유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파송단체	봉사단체	지원단체	전문단체	합계
선교 단체수	136	13	29	49	227
단체 비율(%)	59.9	5.7	12.8	21.6	100
선교사 비율(%)	93.30	2.75	1.02	2.93	100

위 도표에 따르면 한국 선교단체는 파송을 주로 하는 단체 59.9%(136개), 전문단체 21.6%(49개), 지원단체 12.8%(29개), 봉사단체 5.7%(13개)로 구성되었다.

⁵ 초교파 선교단체 185개중 23곳은 선교사가 없지만 타문화권 선교를 하는 단체이다.

⁶ 도표 안의 선교사 수는 응답기준으로서 이중소속 선교사도 포함된 수이다.

⁷ 국제 단체는 해외에 본부를 두고 있고 국내에 지부를 두거나 주요한 영향력이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 단체는 한국내에 외국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국내 자생단체를 말한다.

⁸ 파송단체는 주요 역할이 선교사의 파송과 관리이며, 봉사단체는 선교사와 연결하여 선교목적의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 재정 및 물자를 통해 해외선교를 지원하는 단체 또는 협의회나 연합체 조직을 통해 선교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단체로 분류하며, 전문단체는 선교계나 교계에 선교 전문성을 제공하거나 전문성을 통해 선교 사역을 하는 단체이다.

3.1.4 단체 규모

한국 선교단체의 규모는 선교사 수, 본부 근무자, 재정 세 가지 측면에서 통계 조사를 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였다.

- 선교사 수에 따른 단체 규모(응답기준)

단체규모	단체 수(개)		단체 비율(%)		선교사 수(명)		선교사 비율(%) ⁹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50명 미만	162	157	69.5	69.2	2,320	2,327	9.79	10.06
50-100명 미만	27	26	11.6	11.5	1,964	1,845	8.29	7.91
100-200명 미만	19	19	8.2	8.4	2,498	2,412	10.54	10.34
200-500명 미만	16	16	6.9	7.0	6,200	6,094	26.16	26.12
500-1,000명 미만	4	4	1.7	1.8	2,546	2,563	10.74	10.99
1,000명 이상	5	5	2.1	2.2	8,168	8,068	34.47	34.58

단체의 비율로 보면, 선교단체의 절반 이상(69.2%)이 회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단체이며, 선교단체 80.7%가 회원선교사 100명 미만이다. 선교사 수의 비율에서 보면, 선교사 회원 200명 이상인 단체의 선교사 수 합계는 전체 선교사 수의 71.69%를 차지하고 있다.

- 선교단체 본부 근무자(home office staff)

한국 선교단체의 근무자 수는 전체 선교사 수의 93.3%가 소속된 185개 단체에서 응답하였고, 풀타임 근무자(full-time staff) 1,475명, 파트타임(part-time staff) 600명, 총합계 2,075명으로 집계되었다.

- 선교단체 재정 현황

이번 조사에서는 선교단체의 전년도(2020) 모금 결산액(income)과, 2021년도 10월까지의 재정 증감 여부에 대해 설문하였다. 이번 재정에 대한 단체 응답률은 63.2%(148개 단체)이지만, 이는 작년 조사 단체 응답률 54.3%에서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며, 점차 재정 결산을 공개하는 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48개 단체의 2021년 현황 발표를 위한 전년도 재정 결산 금액의 총합은 2,620억 3천만원이다. 전체 규모에 있어서는 2020년 현황에 발표된 총합 2,647억 9천만원과 차이

⁹ 이중 소속을 제외한 전체 선교사 수에 선교사 비율을 적용하면 50명 이하의 단체에 속한 선교사가 2,234명, 50-100명 미만이 1,757명, 100-200명 미만이 2,296명, 200-500명 미만이 5,802명, 500-1000명 미만이 2,440명, 1000명 이상이 7,681명이다.

가 많이 나지 않았다. 이 항목에 응답한 단체의 재정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단체 유형별 재정규모	파송단체		봉사단체		지원단체		전문단체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선교 단체 수(개)	136	136	11	13	37	29	49	49
재정 응답 단체 수(개)	70	84	8	10	15	20	34	34
전년 결산(억)	1,690.5	1,796.0	768.9	616.6	119.3	135.1	69.2	72.6
전년 결산 평균(억)	24.1	21.4	96.1	61.7	8.0	6.8	2.0	2.1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결산 평균금액은 전문단체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파송단체와 지원단체는 조금 줄었으며, 봉사단체의 결산 수입 평균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2021년 한 해의 재정 증감(전년대비 10월말까지의 모금 증감)에 대한 응답은 69.6%(158개) 단체가 응답했으며, 응답한 단체 중에서 32.3%(51개)는 재정이 감소, 39.2%(62개)는 변화가 없었고, 28.5%(45개)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3.2 한국선교사 현황

선교사에 관해서는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와 선교단체 소속의 단기 선교사 그리고 한국 단체의 파송을 받은 타국적의 국제선교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2.1 장기 선교사

이번 한국선교현황 파악을 위해 먼저 한국 장기 선교사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¹⁰를 제시하였으며, 그 기준을 적용한 한국 국적의 타문화권을 위한 장기 선교사 수는 22,210명이다. 이중으로 소속된 선교사는 숫자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¹¹

- 남녀의 비율 : 장기 선교사의 남녀 비율은 남 48.1% 여 51.9% 로 구성되어 있다.¹²
- 부부와 독신 비율 : 장기 선교사의 부부는 전체 선교사의 89.3%이며, 독신은 10.7%를 차지하였다. 독신 선교사의 남녀 비율은 남 30.62%, 여 69.38%로 집계되었다.

¹⁰ 한국의 장기선교사 조사를 위해 제시된 정의는 타문화권(타문화권 선교에 직간접 기여)에서 2년 이상의 계획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한국 국적)으로서, 한국 내에 분명한 파송 단체 혹은 후원 주체(개교회 파송은 제외)가 있으며, 선교사로 모금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를 말한다. 국내본부의 장기, 행정 사역자, 단체 소속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비량 선교사는 인정하고, 선교사 부부는 2명으로 계산하며, 해외 선교사역에 관여하지 않는 한인교회 목회자, 파송이 아닌 협력 선교사는 제외한다. 이중으로 정식 소속된 선교사는 포함하되, 이중소속 단체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¹¹ 이중으로 소속된 선교사의 수는 각 단체에서 이중 소속된 선교사의 수와 이중 소속된 단체명을 함께 받아 중복 숫자를 계산하였다. 22,210명은 집계된 전체 선교사 23,329명에서 이중 소속으로 인해 4.8%인 1,119명을 제외한 것이다.

¹² 가정과 독신 선교사 비율에 응답한 단체에 속한 선교사의 비율은 전체 선교사의 86.0%이다.

- 연령 분포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를 응답한 선교단체는 72.7%(165개 단체)¹³이며, 아래 도표는 집계된 비율을 바탕으로 각 연령의 선교사 수를 추산¹⁴하였다.

연령 분포	29 세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세이상
비율(%)	0.95	7.44	28.45	39.00	21.24	2.92
선교사(명)	212	1,653	6,319	8,661	4,717	648

- 은퇴 선교사

2021년 한 해 동안 은퇴한 선교사에 대해 160개 단체(70.5%)에서 응답하였으며, 은퇴 선교사 비율은 0.85%이며, 이를 전체 선교사 수에 대입하면 2021년 한 해 189명의 장기 선교사가 은퇴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¹⁵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은퇴자 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10년간의 은퇴자 총수를 파악하고자 하였지만, 10년간 은퇴자 총수를 제출하는 단체가 적어 전체 통계에 반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¹⁶

은퇴 선교사의 은퇴 후 사역 지속 여부에 관해서는 54.8%가 '지속', 39.3%가 '중단', 5.9%는 '모름'으로 파악되었다.¹⁷

- 사역 중단 선교사

2021년 한 해 동안 사역을 중단하거나 단체에서 탈퇴한 선교사의 비율은 1.41%로 집계되었다.¹⁸ 이번 조사에서는 사역 중단 원인을 추가하였으며, 제출된 사역중단 요인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사역 중단 요인 중 직업 및 회원자격 변경(102명)이 가장 높았으며, 선교지 환경(75명), 기타 개인사유(37명), 선교사 질병(31명), 가족 및 재정 환

¹³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에 응답한 165개 단체에 속한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의 77.4%이다.

¹⁴ 추산은 이중 소속 선교사 수를 제외한 선교사 수인 22,210명에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¹⁵ 160개 응답한 단체의 소속 선교사 19,669명은 전체 선교사 수의 70.5%를 차지하고 있고, 응답하여 집계된 은퇴 선교사 수는 168명이었다. 응답한 단체 소속 선교사 수에 대한 은퇴 비율 0.85%을 이중 소속 선교사 수를 제외한 선교사 총수(22,210명)에 적용하면, 2021년 당해 전체 은퇴 선교사는 189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참고로 2020년 은퇴 선교사 비율은 0.76%(170명)이었다.

¹⁶ 10년간 1명 이상의 은퇴자가 있는 것으로 제출한 단체는 48곳이며, 10년간 은퇴자 합은 608명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단체 소속 선교사 총수는 13,918명이다. 수집된 정보가 적어 전체 통계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진다.

¹⁷ 지난 2020년 조사에서는 은퇴 후 44.1%가 '지속', 45.7%가 '중단', 10.2%는 '모름'이었다.

¹⁸ 사역중단과 탈퇴 선교사는 139개 단체에서 266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응답된 단체의 선교사 수를 기준으로 한 사역중단 선교사의 비율은 1.41%으로 전체 사역중단 선교사는 313명으로 추정된다. 응답된 단체비율은 61.2%이지만, 여기에 포함된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조사에서 사역 중단 선교사 비율은 1.49%였다.

경(19명), 소명 및 자질(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⁹

- 신규 파송 및 허입 선교사

2021년에 신규로 파송되거나 허입된 선교사의 비율은 3.17%이다.²⁰

신규 파송 선교사의 사역대상국가는 총 66개국으로 다음과 같이 집계되었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필리핀 43명, 일본 33명, 동남아 C국 29명, A권역 26명, 동남아 I국 24명, 태국 17명, 서남아 I국 17명, 동남아 MM국 16명, T국 15명, R국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는 4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기타 또는 미정이 175명이다.

대륙별로 집계된 신규 파송 선교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²¹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북미	중남미	남태평양	미정
신규파송(명)	340	52	45	24	13	12	3	175
2021비율 (%)	51.2	7.8	6.8	3.6	2.0	1.8	0.4	26.4

신규 파송 및 허입 선교사에 대한 연령 분포는 이번 조사에서 추가된 항목이며,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²²

연령 분포	29 세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세이상
비율(%)	4.93	24.24	36.93	21.59	12.31	0.00

- 자비량(텐트메이커, 전문인) 선교사

이번 한국선교현황 조사를 위해 정의된 자비량 선교사의 개념은 위에서 정의한 장기 선교사 중에서 스스로 생활과 사역의 재정을 조달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하지만, 후

¹⁹ 사역 중단 선교사 266명 중 246명에 관한 중단 요인이며, 직업 및 회원자격 변경(102명)의 세부요인으로서는 국내목회전환 65명, 직업변경 19명, 회원자격변경 11명, 단체변경 4명, 휴직 3명; 선교지 환경(75명) 세부요인은 사역국가관련 29명, 비자발적 철수 19명, 비자 18명, 코로나19 영향 8명, 순직 1명; 기타 개인사유(37명) 세부요인은 개인사유 24명, 계약기간종료 10명, 학업 3명; 선교사 질병(31명) 세부요인은 선교사 건강 22명, 소천 9명; 가족 및 재정환경(19명) 세부요인은 후원부족 10명, 가족질병 5명, 가족 문제 4명; 소명 및 자질(7명) 세부요인은 현지 부적응 4명, 면직 또는 권고사직 3명이다. 일부의 답변 중에서 다중 원인이 있는 경우 각각 처리하였다. 예: 비자발적 철수로 인해 국내로 들어와 직업을 변경한 경우가 2명 일 경우, 비자발적 철수 2명, 직업변경 2명으로 처리하였다

²⁰ 2021년에 신규로 파송되거나 허입된 선교사는 664명으로 응답되었으며, 응답한 해당 단체의 선교사 총수는 전체의 89.9%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된 선교사 수를 기준으로 한 신규 파송 선교사의 비율은 3.17%이다. 참고로 지난 2020년 조사에서는 신규 파송 및 허입 비율이 2.49%였다.

²¹ 응답기준 세부권역별로 집계된 숫자는 다음과 같은 순이다: 미정 175명, 동남아시아 159명, 동북아시아 77명, 한국 44명, 동유럽 34명, 남아시아 32명, 중앙아시아 28명, 동남아프리카 28명, 중동, 24명, 서중앙아프리카 18명, 북아메리카 13명, 라틴아메리카 12명, 서유럽 11명, 북아프리카 6명, 남태평양 3명, 카리브해 0명이다.

²² 신규 파송 및 허입 선교사로 집계된 수 664명 중 연령 분포가 표기된 528명(79.5%)에 대한 연령별 분포 비율이다.

원금이 아닌 다른 수입이 일부 있더라도 생활과 사역을 주로 후원금에 의존하는 경우,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준에 의한 주요 수입원을 모금과 후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비량 선교사는 16.15%로 집계되었으며, 집계된 비율을 통해 추정할 경우 3,587명이다.²³

- 국내 본부 선교사

장기 선교사 중에서 국내 본부에 근무하는 선교사는 2.55%로 집계되었다. 이 비율을 반영한 본부 근무 선교사 수는 567명으로 추산된다.²⁴ 선교사 총수에서 부부는 2명으로 계산했지만, 본부 사무실에 한 명만 근무할 경우 국내 본부 선교사는 1명으로 계산하였다.

- 사역 대상

한국 선교사(장기)의 주요 사역 대상은 해외 현지인 82.5%, 해외 한인(디아스포라) 9.5%,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3.0%, 국내 외국인 2.8%, 기타 2.2%로 집계되었다.²⁵

- 사역 대상 국가

사역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167개국²⁶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선교사가 사역 대상으로 하는 곳은 A권역(1,709명)이며, 그 뒤를 이어 미국(1,702명), 필리핀(1,318명), 일본(1,281명), 태국(980명), 동남아 I국(778명), 동남아 C국(773명), 서남아 I국(648명), 동남아 V국(580명), 동남아 M국(480명) 순으로 추산되었다(이상은 해외 사역 대상국가 상위 10개국이며, 한국은 1,565명이다).²⁷ 이는 실제 거주국 우선이 아닌 사역 대상국을 중심으로 파악된 수이다.²⁸

²³ 응답기준에서는 3,467명(전체 선교사 수의 92.0%를 포함하는 176단체에서 응답된 수)이 집계되었으며, 자비량 선교사의 비율은 16.15%이다. 지난 2020년 조사에서 자비량 선교사의 비율은 13.83%였다.

²⁴ 응답자 기준에서는 본부에 근무하는 선교사는 546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여기에 응답한 해당단체의 선교사 총수는 전체의 91.73%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된 선교사 수에서 계산한 본부근무 선교사의 비율은 2.55%이다. 지난 조사에서 본부 선교사의 비율은 2.03%였다.

²⁵ 선교사의 사역대상은 167개의 단체가 응답했으며, 여기에 소속된 선교사의 비율은 전체의 74.5%이다.

²⁶ 사역 대상국은 일반적인 국가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홍콩, 마카오, 괌은 특성상 사역 대상국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²⁷ 사역 대상국을 제출한 165개의 단체의 소속 장기 선교사는 전체의 85.2%이다. 위의 각 나라별 사역 대상국에서의 선교사 숫자는 이 비율을 적용하되 이중소속을 고려하여 추산된 것이다.

²⁸ 사역 대상국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대한 응답율이 매우 낮고, 전체 선교사의 3.4%만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체는 선교 대상국과 실거주의 차이는 더 많을 것이다. 실거주와 사역대상국이 5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국가는 3곳으로 다음과 같다. 한국은 사역대상국으로 1,565명이지만, 한국 실거주 선교사는 709명이 더 많은 2,275명(또는 그 이상)이며, 이 숫자는 임시 귀국 선교사를 포함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또는 다른 국가를 사역대상으로 하는 장기 선교사의 수이다. A권역을 사역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는 1,709명이지만, A권역 실제 거주는 1,484명(또는 그 이하)이며, 서남아 I국을 사역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는 648명이지만, 서남아 I국 실제 거주 선교사는 572명(또는 그 이하)로 추정된다.

이를 대륙별로 묶어서 사역 대상국가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²⁹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남태평양	기타
선교사(명)	13,301	2,143	1,984	1,910	1,007	962	657	246
비율(%)	59.9	9.7	8.9	8.6	4.5	4.3	3.0	1.1

- 개척지수별 분포³⁰

사역대상 국가별 선교사 분포를 개척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³¹

개척지수별 구분	사역대상국(개)		선교사 비율(%)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F3 복음화 5% 미만, 박해지역	38	38	20.68	20.33
F2 복음화 5% 미만, 박해지역 아님	42	42	27.52	27.72
F1 복음화 5-10% 미만	11	11	11.25	10.36
G1 복음화 10-15.5% 미만	41	41	12.65	12.64
G2 복음화 15.5% 이상	36	35	26.85	27.84
기타	-	-	1.05	1.11
합계	168	167	100	100

위 도표를 통해서 볼 때, 이번 조사에서 개척 선교(Frontier Mission) 지역(F1, F2, F3)을 사역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의 비율은 58.41%이다.

- 사역 유형³²

한국 장기 선교사의 사역 유형은 교회개척 8,747명, 제자훈련 5,206명, 지도자 양육

²⁹ 세부권역별로 집계된 비율을 통해 전체 추정 숫자는 다음과 같은 순이다(괄호 안은 작년 조사의 비율이다). 동남아시아 25.7(25.8)%, 동북아시아 17.0(18.0)%, 북아메리카 9.7(9.3)%, 한국 7.1(6.3)%, 남아시아 6.5(6.5)%, 동남아프리카 5.2(5.1)%, 서유럽 4.6(4.7)%, 중동 4.3(4.4)%, 라틴아메리카 4.1(4.3)%, 동유럽 4.3(3.9)%, 중앙아시아 3.6(3.7)%, 남태평양 3.0(3.0)%, 북아프리카 1.8(1.9)%, 서중앙아프리카 1.6(1.5)%, 카리브해 0.4(0.5)%이다.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순회, 국내 여러 국적의 외국인 사역이 포함된 기타는 1.1(1.1)%이다. 작년 보고서에서는 한국 6.3%와 기타 1.1%를 합쳐서 한국 7.4%로 발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정확한 통계를 위해 기타를 분리했다.

³⁰ 개척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WMA의 Target2030을 참조하라.

³¹ 이번 조사부터는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순회 등이 포함된 기타는 정확한 통계를 위해 한국(G2)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분리했다. 도표 속에 있는 2020년의 F1,2,3과 G1,2에 표기된 국가의 수는 2020년 해당 영역 국가 수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2020년 표기에는 해당 분류에 속하는 모든 국가 수가 표기되었다).

³² 선교사 사역 유형은 164개의 단체가 응답했으며, 여기에 소속된 선교사의 비율은 전체 선교사의 77.0%이다. 이 비율을 반영하여 위의 수치를 추산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난민(국내외), 국내 다문화, 현지 지역교회 협력이다. 이전의 행정 항목은 본부(기관,행정,연합)으로 표기하였고 선교동원 항목은 선교동원(미션 플랜팅)으로 표기하였다. 사역 유형은 선택 항목이 많이 있고, 다중 선택이 허용되며, 매년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달리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대략적인 데이터라고 보아야 한다.

2,200명, 선교동원 2,071명, 어린이/청소년 1,831명, 선교교육 1,633명, 교육선교 1,614명, 기타사역 1,508명, 캠퍼스 선교 1,508명, 복지/개발 1,488명, 현지 지역교회 협력 1351명, 신학교 844명, 문화/스포츠 785명, 의료선교 702명, 비즈니스(BAM) 603명, 상담/치유/케어 602명, 성경번역관련 598명, 순회전도 479명, 본부행정 478명, 국내 외국인 근로자 379명, 국내 외국인유학생 342명, 선교사훈련 321명, M.K사역 257명, 난민(국내외) 214명, 방송 문서/출판 209명, 국내 다문화 190명, 방송/미디어/IT 184명, 선교연구/정보관련 125명이다.

3.2.2 단기 선교사

이번 한국선교현황 파악을 위해 정의된 단기 선교사의 개념은 타문화권에 나가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계획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선교단체의 단기선교사의 자격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를 말한다. 따라서 개교회 소속 단기 선교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기 선교사 수는 위에서 밝힌 장기 선교사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준에 의한 단기 선교사는 166단체(73.1%)에서 402명으로 집계되었다.³³

3.2.3 국제 선교사

앞에서 언급된 장기 선교사는 해외선교를 하는 한국 국적의 선교사만을 말하기 때문에 타국적 국제 선교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국선교현황은 한국 국내 단체가 파송한 국제 선교사를 포함할 수 있고, 앞으로 국제(international, 타국적)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에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한국 선교단체 소속의 국제 선교사는 170 단체(74.9%)가 응답하여 74개국 929명으로 집계되었다.³⁴

3.3 한국 선교사 자녀(MK)

선교사 자녀는 교육 연령에 따라 분류하여 통계를 내었다. 2021년 장기 선교사의 자녀(성인 MK포함)는 응답기준(152단체)으로 16,92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선교사의 기준으로는 20,295명으로 추정된다.³⁵

이번 조사에서 MK의 교육 연령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은 8.2%, 초등학생 16.4%, 중고등학생 18.2%, 대학생 23.0%, 취업 연령 및 그 이상은 34.2%였다.³⁶

³³ 응답된 단체 중에서 1명 이상의 단기 선교사가 있는 단체는 26곳이다. 2020년 조사에서는 135단체(57.9%)에서 451명으로 집계되었다.

³⁴ 응답한 단체 중에서 1명 이상의 국제 선교사가 있는 단체는 47곳이다. 2020년 조사에서는 148단체(63.5%)가 응답하여 70개국 1,435명으로 집계되었다.

³⁵ 응답한 152단체에 속한 선교사 18,526명의 MK는 16,929명으로 선교사에 대한 MK 비율은 91.38%이다. 이 비율을 이중 소속을 제외한 선교사 수에 적용하였다.

³⁶ MK의 교육 연령별 구성 비율에 설문에 답을 한 단체는 138개 단체(60.8%)였으며, 세부 구성 비율에 응당한 MK의 총수는 14,675명이었다.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이후 MK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각 선교단체의 MK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협조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4. 추가 조사 항목

다음은 최근 여러가지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른 몇 가지 추가 조사에 대한 결과이다.

4.1 임시 귀국 장기 선교사

임시 귀국 장기 선교사는 귀국하여 2021년 국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교사를 말하며, 국내에 정착하여 장기 사역(국내에서의 사역으로 전환)을 시작한 선교사는 제외하였다. 2021년 임시 귀국 장기 선교사는 응답기준(152단체)으로 2,707명으로 집계되었다.³⁷

세부 요인을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요인으로 귀국한 비율은 34.3%, 코로나19 이외의 사역지 환경의 부득이한 사유(치안, 비자거절, 추방 등)는 16.5%, 기타 개인적인 이유(정기 안식년, 건강, 모금, 방문 등)는 49.2%로 나타났다.³⁸ 임시 귀국에서 개인적인 이유를 제외한 선교 외부 환경 요인이 50.8%를 차지하고 있다.

임시 귀국하여 국내에 머물면서 국내 사역으로 전환한 선교사의 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 사역으로 전환한 장기 선교사는 응답기준(146단체)으로 155명이 집계되었고 그 중에서 국내 외국인(타문화)을 대상으로 사역을 전환한 선교사는 67명으로 집계되었다.³⁹

4.2 파송 훈련 및 선교 교육

최근 코로나19와 선교 환경의 변화로 인해 선교와 관련된 교육 실태의 증감을 2020년과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아래 항목에 대해서 147개 단체(64.76%)가 응답하였다.

4.2.1 선교사 파송 훈련

선교사 파송을 위한 훈련과 관련하여, 최근 2년 간의 참가자 수는 다음과 같다.

³⁷ 장기 선교사 18,776명(전체의 80.5%)이 속한 152단체에서 귀국 중인 선교사의 수는 2,707명이다. 응답된 수를 바탕으로 본 임시 귀국 비율은 14.42%이며, 이를 이중 소속 선교사를 제외한 전체 선교사 수에 적용하면 2021년 귀국 중인 장기 선교사의 수는 3,203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³⁸ 임시 귀국에 관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2,707명 중 1,798명(66.42%)이 속한 단체에서 답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 영역의 비율을 표시하였다. 임시 귀국 원인에는 위의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선제적인 요인을 먼저 고려하여 단일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임시 귀국 요인은 선교사와 주위 환경의 여러 다중적인 측면에서 이뤄지기에 세 가지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³⁹ 응답한 146개 단체에 속하는 선교사의 수는 17,082명(전체의 73.2%)으로, 이 수를 기반으로 비율을 산출하면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 사역으로 전환한 장기 선교사는 0.91%(202명), 그 중에서 국내 외국인(타문화)을 대상으로 사역을 전환한 선교사는 0.39%(87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2021년 한 해만 고려한 것이며, 국내에 머물면서 국내 사역으로 전환 중에 있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선교사 수를 생각하면 좀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실행 단체 수는 응답 단체 중 참가자가 1명 이상인 단체의 수를 말한다.

선교사 파송 훈련	참가자 수(명)	실행 단체(개)	증감률(%)
2020년	676	35	-
2021년	598	35	-11.54

4.2.2 선교사 교육

선교사 연장 교육을 포함한 선교사를 위한 파송 이외의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2년 간의 참가자 수는 다음과 같다.

선교사 교육	참가자 수(명)	실행 단체(개)	증감률(%)
2020년	774	23	-
2021년	511	27	-33.98

4.2.3 선교 관심자 정기 선교 교육

선교 관심자에 대한 정기적인 선교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2년 간의 참가자 수는 다음과 같다.

선교 관심자 선교 교육	참가자 수(명)	실행 단체(개)	증감률(%)
2020년	1,835	27	-
2021년	2711	29	47.74

4.3 단기 선교 활동

한국선교현황 조사에서 단기 선교사 개념은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년 미만은 단기 선교 활동이라는 범주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1년 미만의 단기 선교 활동에 대해서 146개 단체(64.32%)에서 응답하였으며, 선교 단체가 아닌 개교회의 단기 선교활동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4.3.1 기간별 단기 선교 활동

아래의 표는 단기 선교 활동의 기간별 참가자 수이며, 1년 미만의 단기 선교 활동은 총 641명으로 집계되었다.

단기 선교 활동 기간	참가자 수	실행 단체	온라인 참가 비율
1-3주	425명	14개	78.12% (332명)
4주 이상 6개월 미만	155명	9개	54.19% (84명)
6개월 이상 1년 미만	61명	6개	21.31% (13명)

4.3.2 대상별 단기 선교 활동

단기 선교 활동의 기간과 상관없이, 두 영역의 대상(해외 현지인, 국내 타문화권)을 위해 단기 선교 활동에 참여한 수이며, 그 총수는 3,809명으로 집계되었다.

단기 선교 활동 대상	참가자 수	실행 단체	온라인 참가 비율
해외 현지인 대상	1,985명	14개	97.13% (1,928명)
국내 타문화권 대상	1,824명	10개	91.23% (1,664명)

5. 나가는 말

2019년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 KWMA와 KRIM이 협약을 맺고, 이제 두 번째로 2021년 현황 보고를 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들을 비교하면서 자료들의 추이를 나타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전 조사에 미진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였다.

특히 이번 현황 보고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 선교 역량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했으며, 최근 변화하는 요소를 반영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선교 환경을 준비하는 기초 자료로서 한국선교현황이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선교단체와 교단의 지속적인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번 통계 자료를 준비하면서 수고한 KRIM의 연구원들과 선교현황 설문 설계 단계에서 함께 논의한 KWMA 사역자, 그리고 통계에 응한 선교단체 실무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질병관리청

보 도 자 료

3월 15일(화) 조간(3.14.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22. 3. 14. / (총 9 매)	담당부서	건강위해대응과
과 장	황 호 평	전 화	043-913-2378
담 당 자	나 경 인		043-219-2920

한국 흡연으로 연간 사망자 수 5.8만 명, 사회경제적 비용 12조 원 이상 발생!

- ◇ '19년 직접 흡연기준 추정 사망자 수 총 58,036명(남50,942명, 여7,094명)
 - * 흡연자-비흡연자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 비교 결과
 - (현재 흡연) 남자 1.7배 ↑, 여자 1.8배 ↑, (과거 흡연) 남자 1.1배 ↑, 여자 1.3배 ↑
- ◇ '19년 직접 흡연기인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2조 1,913억 원
 - * 직접비 4조 6,192억 원, 간접비 7조 5,721억 원
- ◇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 폐해 산출을 위한 민·관·학 협력 빅데이터 협력방안'을 마련·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폐해 규모 감시 및 연구 활성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한국인의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한 결과*, '19년 5만 8천여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했고, 12조 1,91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용역) 흡연 폐해 연구기반 구축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19-'21, 서울대학교)

○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흡연 폐해 현황을 진단하고, 과거 흡연에 따른 건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이에 국가 주도의 대표성 있는 자료산출을 위해 '19-'21년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자료를 연계한 '흡연 폐해 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붙임2) 하고 산출 방법(붙임3)을 표준화하였다.
- '19년 직접 흡연기준 추정 사망자 수를 산출한 결과 총 58,036명 (남 50,942명, 여 7,094명)로 기여사망률은 남자는 32.3%, 여자는 5.3%였다.
- 또한,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남자 1.7배, 여자 1.8배 높고, 같은 조건 과거 흡연자일 경우에는 남자 1.1배, 여자 1.3배 높았다.

기준연도	남자				여자			
	현재흡연 HR	과거흡연 HR	기여 사망률	사망 추정지수	현재흡연 HR	과거흡연 HR	기여 사망률	사망 추정지수
2019년	1.702	1.108	32.3%	50,942	1.795	1.31	5.3%	7,094

표1. 흡연기인 추정사망자수(2019년 기준)

-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 흡연 같은 해 기준 총 12조 1,913억 원이 추계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비 4조 6,192억 원*, 의료이용 및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의 간접비로 7조 5,721억 원**이었다.

* 의료비 4조 764억 원, 교통비 870억 원, 간병비 4,559억 원

** 의료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1조 1,115억 원,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6조 4,606억 원

- 한편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간접흡연 폐해 규모를 파악해 보기 위한 시범적 연구로, 제한적이기는 하나 가족 중의 흡연자에 기반한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구축된 ‘흡연 폐해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성 확보 및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흡연 폐해 산출을 위한 민·관·학 협력 빅데이터 협력방안’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시간·자본의 가치 및 잠재적인 손실까지의 부담이 상당하다며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금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 “또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민간전문가를 통한 연구 활성화로 국가금연정책의 강력한 과학적 근거자료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동 연구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려받기도 가능.

- <붙임> 1. 우리나라 흡연 기인 사망자 수 및 사회경제적 부담 소책자
2. 흡연폐해연구데이터베이스
3.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사회경제적 비용 계산 방법
4. 질의응답

붙임 1

우리나라 흡연 기인 사망자 수 및 사회경제적 부담 소책자

1.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며, 개별사항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책자의 내용을 참고문헌, 세미나, 기타 분석 등에 인용 시에는 자료권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용역명 : 흡연예방연구(인구·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19~21))

2022. 3.

BECAUSE OF
SMOKING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
('19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사회경제적 비용

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2019년 한 해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

58,036명

* 매일 159명 사망



흡연은 많은 질병의 발생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흡연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폐암, 허혈성심장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과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기대수명보다 빨리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대학교 조성일교수팀과 함께 흡연으로 인해 사망가능성이 높은 질환들을 선정한 후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자수와 직접적으로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표준화하는 연구(19~21년)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으로 한 해 동안 몇 명이 사망하고, 조기사망과 질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19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수는 58,036명이며, 이는 잠실야구장 총 수용인원 약 26,000명에 비해 2배 이상 수준입니다.

흡연유무와 사망위험

* 2019년 기준



전체 사망자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

* 2019년 기준



01

②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2019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 1,91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12조 1,913억 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뺏아가는 흡연, 끊으면 생명과 재산,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02

붙임 2

흡연 폐해 연구 데이터베이스

- 흡연 폐해 연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연구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구축)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 1차 수검자표본에서 ①정보 누락, ②정보오류자, ③30세미만, ④연계되는 코호트 중복자 등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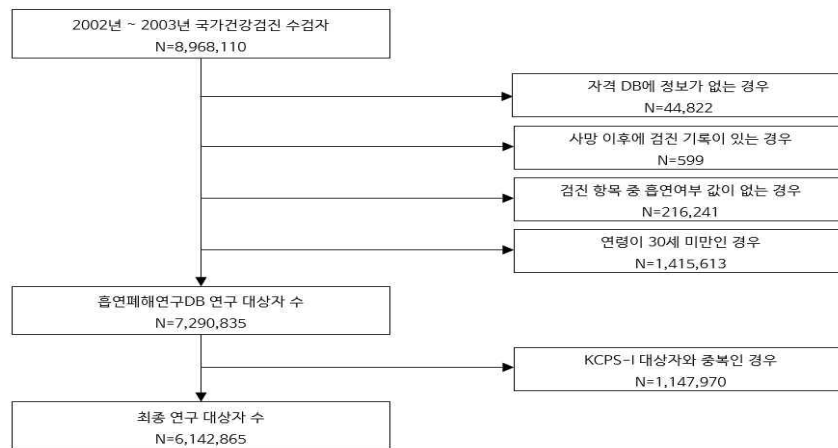


그림. 흡연폐해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흐름도('19년 기준)

- (자료관리) 매년 통계청사망원인 등 연계대상 공공자료원 업데이트 및 사망자수·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붙임 3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사회경제적 비용 계산 방법

□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 산출과정**

- (1단계) 흡연으로 인한 총 사망 및 주요 질병* 선정 후 비흡연자 대비 현재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의 위험도** 산출
 - * 폐암, 허혈성심장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41개
 - ** 질환별 노출 수준별 위험비(Hazard Ratio, HR) : 흡연폐해연구데이터베이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한국인 대사증후군 사망, 한국인 암예방연구 등 코호트 등을 활용한 메타분석
- (2단계) 기준연도인 '19년으로부터 약 20-30년 전 흡연율* 파악 후 인구기여분율 산출
 - * 전국흡연실태조사(대한결핵협회, '85),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95)
- (3단계) 총 사망자수에 인구기여분율을 곱하여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 산출

인구기여분율 (PAF)	$\frac{Pe(RR-1)}{1+Pe(RR-1)}$	Pe : 관심요인 노출 인구 비율 RR : 상대위험도	
기여사망률	SAM Smoking Attributable Mortality	= OM Observed Mortality	× PAF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과정**

- (1단계) 질병별, 성별 인구기여분율 산출 후 직접비* 및 간접비** 산출
 - * 직접비 : ①(의료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원진료, 외래진료, 약국 이용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②(교통비) 입원과 외래 이용을 위한 평균 왕복 교통비, ③(간병비) 간병 이용 시 발생하는 평균 간병비
 - ** 간접비 : ①(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손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망원인원시자료의 성별·질병별·연령별 사망자수에 성·연령별 생존율, 평균임금을 이용해 생산성 손실, ②(의료이용으로 인한 생산성손실) 입원과 외래이용에 따른 시간 손실과 연령별 시간의 가치를 이용해 산출

○ (2단계) 세부항목별 비용 산출

직접비	의료비(CM_{ij})	$\left\{ \frac{I_{ij}}{1-\alpha} + \frac{O_{ij}}{1-\beta} + \frac{P_{ij}}{1-\gamma} \right\}$ i : 질병 j : 성별	I_{ij} : 입원 총진료비 O_{ij} : 외래 총진료비 P_{ij} : 약국 총진료비 α, β, γ : 비급여 본인부담률 (입원, 외래, 약국)
	간병비(CIN_{ij})	$ID_{ij} \times DIN \times \text{간병률}$ i : 질병 j : 성별	ID_{ij} : 입원일수 DIN : 일평균 간병비
	교통비(CT_{ij})	$\{ (IN_{ij} \times T_{ij}) + (OD_{ij} \times T_{ij}) \}$ i : 질병 j : 성별	IN_{ij} : 입원 건수 OD_{ij} : 외래방문건수 T_{in}, T_{od} : 평균 왕복 교통비 (입원, 외래)
간접비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 ($EL1_{ijk}$)	$D_{ijk} \times V_{jk}$ i : 질병 j : 성별 k : 연령별	D_{ijk} : 사망자 수 V_{jk} : 생명의 가치
	의료이용으로 인한 손실 ($EL2_{ijk}$)	$AE_k \times \left\{ ID_{ijk} + \frac{1}{3} OD_{ijk} \right\}$ i : 질병 j : 성별 k : 연령별	AE_k : 1일 시간의 가치 ID_{ij} : 입원일수 OD_{ij} : 외래방문일수

○ (3단계) 총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직접비	총 직접비(DC)	$DC = \sum_i \sum_j PAF_{ij} \times \{ CM_{ij} + CIN_{ij} + CT_{ij} \}$
간접비	총 간접비(IC)	$IC = \sum_i \sum_j \sum_k PAF_{ij} \times \{ EL1_{ijk} + EL2_{ijk} \}$

- (산출공식) 질병부담접근방법(Cost of illness approach, COI)으로 질병으로 인해 소모된 자원과 기회 비용 모두 포괄한 ① 의료서비스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접비, ② 의료서비스 이용과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의 간접비 합산

붙임 4

질의응답

1. 흡연과 직접적인 사망과의 연관성이 높은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 우리나라 흡연 기인 사망과 연관이 있는 총 41개 질환을 선정하여 해당 질환별 위험도를 산출함
 - 흡연은 폐암을 비롯하여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위암 등 거의 모든 암을 비롯하여 허혈성심장질환, 부정맥, 뇌졸중 등 심혈관계질환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 호흡기질환과 연관되어 있어, 흡연기인 사망관련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산출함
- * 정금지, 윤영덕, 백수진, 지선하, & 김일순. (2013). 한국인 성인 남녀의 흡연관련 사망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8(2), 36-48.

2. 흡연율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는데 사망자수도 함께 낮아졌나요?

- 2012년 기준으로 흡연 기인 사망자 수를 산출한 과거 연구*에서는 1985년 흡연율 적용하여 산출하여 총 58,155명(남자 49,704명, 여자 8,451명)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 * 정금지, 윤영덕, 백수진, 지선하, & 김일순. (2013). 한국인 성인 남녀의 흡연관련 사망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8(2), 36-48.
- 단, 이번연구의 2019년도 기준 흡연 기인 사망자 수는 1995년 흡연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 해석에 주의가 요구됨

3. 추계자료 산출 시 과거 흡연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흡연 기인 사망자 수 산출 시, 흡연이 폐암 등 각종 질환에 미치는 잠재기(latency period)를 감안해 과거 흡연율을 사용하게 됨
 - 즉, 과거의 흡연이 현재의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흡연 기인 사망자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함
 - *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사망을 추정하기 위해서 24년 전의 흡연율을 적용함

4.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부담이 높은 편인가요?

- 국가 간 흡연율, 상대위험률, 의료제도, 소득 등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부담 비교는 어려움
- * 국외연구(Goodchild, et al., 2018)에서 2012년 기준, 전 세계 152개 국가의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비용을 산출한 결과 흡연으로 인해 질병으로 소요된 직·간접 사회경제적 비용은 1,852억만달러로 전 세계 GDP의 1.8%로 보고된 바 있음

	Direct Cost		Indirect Cost		Total Cost	
	SAHE (ppp\$ mn)	%	Disability (ppp\$ mn)	Mortality (ppp\$ mn)	Total (ppp\$ mn)	GDP (%)
High-Income	369,002	6.5	275,097	478,833	1,122,932	2.2
Upper-Middle-Income	75,031	4.0	74,456	205,091	354,578	1.2
Lower-Middle-Income	21,236	3.9	91,447	246,365	359,048	1.7
Low-Income	2,011	4.0	5,272	8,300	15,583	1.2
World	467,279	5.7	446,273	938,589	1,852,141	1.8
Africa	4,566	3.5	5,571	9,317	19,454	1.0
Americas	239,559	6.7	159,445	226,886	625,890	2.4
Eastern Mediterranean	6,583	2.0	13,291	24,807	44,680	0.6
Europe	141,787	6.6	134,552	339,503	615,843	2.5
Southeast Asia	15,299	4.1	83,880	220,320	319,499	1.8
Western Pacific	59,485	3.8	49,534	117,756	226,775	0.9

*GDP(Gross domestic product), THE(Total health expenditure), PPP(Purchasing power parity), SAHE(Smoking-attributable health expenditure)

※자료원 : Goodchild et al., Global economic cost of Smoking-attributable diseases, Tobacco Control, 2018, 27.1:58-64